

# 광주, 나들가게 폐업률 64% '전국 최고'

최근 5년간 267개 중 171곳 폐업·지정 취소  
대형마트·백화점 등 밀려 매출 줄어 효과 못거둬

광주지역 '나들가게'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267개 점포 가운데 171곳(64%)이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했다.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광주 267개·전남 446개 등 총 7598개의 나들가게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의 지난 5년 간(2015년~2019년 8월) 폐업 또는 취소된 점포수의 비율은 64%(267개 중 171개)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폐업률 33.9%를 훌쩍 넘었다. 반면 전남의 나들가게 폐업률은 20.4%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 5년 간 광주에서 문을 닫은 나들가게는 개설된 점포 수보다 훨씬 많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나들가게가 26개 생길 동안 폐업·취소된 나들가게는 2015년 55개, 2016년 25개, 2017년 41개, 2018년 35개, 올해 15개 등 총 171개에 달한다.

올해 광주에서는 15개의 나들가게가 폐업했고 4개 점포가 새로 지정됐다. 동네슈퍼 유통 시스템을 '마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였지만 광주지역 나들가게 10곳 가운데 6곳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현판을 반납한 것이다.

이처럼 광주 나들가게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낮은 매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광주 나들가게 월 평균 매출은 3129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3298만1000원) 보다 168만2000원이나 낮았다. 지난해 광주 평균 매출은 전년(3367만원)보다 7.04% 줄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나들가게를 폐업·취소할 전국 4048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나들가게 지정을 반납한 뒤 일반슈퍼로 전환한 비율이 27.6%로 가장 높았고 '타입종 전환'(24.4%), '편의점 전환'(21.7%)이 뒤를 이었다.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가 관리하는 나들가게는 실시간 영업정보 분석과 온라인 수발주가 가능한 100만원 상당 POS(전자사금 등록기기) 시스템을 지원하고 안전시설 개선,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을 제

**?** 나들가게  
중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단이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사업 신청한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POS 시스템·경영 상담 등을 지원한다. 자기 부담은 전체 지원금의 20~30% 정도다.

공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 나들가게가 1399개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고 경북 622개, 전북 561개, 경남 463개, 충북 455개, 대구 452개, 전남 446개 순으로 많았다. 광주 나들가게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13번째를 차지했다.

유행열(72) 광주시 나들가게협회 이사장(북구 임동마트 운영)은 "지난 2012년 나들가게에 지정되면서 간판 설치·POS 도입 등으로 350만원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식자재 마트 등 중대형 마트가 잇따라 생기면서 매출의 큰 변화는 없었고 지난해의 경우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동네가게 상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나들가게 주변 중대형 마트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남구, 서구, 목포시는 나들가게 선도지역에 선정돼 총 29억6300만원의 국비·지방비를 내년까지 지원받

## ■ 5년간 나들가게 폐업률



는다.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통해서 모델숍에 지정되면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을 받거나 노후시설 개선, 공동 세일전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1.91 (-40.51)
- ↓ 금리(국고채 3년) 1.30 (-0.02)
- ↓ 코스닥 624.51 (-7.59)
- ↑ 환율(USD) 1206.00(+7.00)



## 한전, 대만 국제발명전시회 금상·특별상 '2관왕'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철원)는 지난 26~2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Taipei World Trade Center, TWTC)에서 열린 '2019 대만 국제발명 전시회(2019 Tiwan Innotech Expo)'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기술 융복합 현실기반 지능형 전력구관리시스템"을 출품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금상"과 "대만발명협회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임철원 본부장은

"최근 서울 KT 지하통신구 화재, 발전소 화재 등으로 사회기반시설 재난대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세계적인 발명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해 의미가 깊다"며 "세계 최초 독점 기술 확보로 전 세계 전력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교두보가 마련됐으며 향후 사내 직원들의 지속적인 직무발명 지원을 통해 한전 광주전남본부가 전력시장 혁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국민대통합을 위한

# 2019 영호남 문화대축전

2019. 10.25 | 1일 - 27 | 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문화는 통한 교류의 장  
어울림을 주제로 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영·호남 특산물 전시 판매

주최·주관 **광주일보** 매일신문사  
후원 전라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 광주은행, 조선대병원에 1천만원 상당 환아복 지원



광주은행은 2일 오후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지역 아동 환아복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장용관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송중욱 광주은행장, 배학연 조선대학교병원장, 정선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관장.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일 오후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지역 아동 환아복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장용관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배학연 조선대학교병원장, 정선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진

행하고 있는 환아 지원 캠페인 '하루'를 통해 지난 9월 3일 전남대학교병원 어린이병동에 환아복을 전달한데 이어 이번 조선대학교병원 어린이병동에도 1000만원 상당의 환아복 600벌을 후원하게 되었다.

'하루'는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아이들에게 예쁜 그림으로 디자인한 환아복을 지원해주는 캠페인으로 이번 환아복 지원 사업에는 광주은행 기부금과 임

직원 성금이 더해져 사회공헌행사로 뜻깊은 의미가 더해졌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힘든 입원생활 속에서도 지역의 아이들이 꿈과 용기를 잃지 않고,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 앞으로도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우리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호남 최대 스마트저축은행 새 주인 찾는다

사모펀드와 매각협상 결렬  
대유에이텍, 원점서 재추진

호남권 최대 저축은행인 스마트저축은행이 새 주인을 찾는다. 매각 협상 중이던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마트투자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취득 승인을 받지 못해 매각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대유에이텍은 스마트투자파트너스와 협상 중이던 스마트저축은행 주식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저축은행은 대유에이텍과 대유플러스가 각각 41%, 41.5%씩 보유하고 있다. 대유에이텍은 이 주식을 스마트투자파트너스에 전량 매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투자파트너스가 스마트저축은행 주식 매수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주식취득 승인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한 내 수취하지 못했고, 대유에이텍과 대유플러스는 지난 1일자로 주식매

매계약을 해제했다. 대유에이텍과 대유플러스는 계약에 따라 스마트파트너스에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반환할 예정이다.

스마트저축은행 매각협상은 다른 파트너로 대체해 계속한다.

광주에 위치한 스마트저축은행은 호남권 최대 규모의 지역저축은행이다. 지난해 기준 스마트저축은행의 자산은 6805억원, 순이익은 117억원을 기록했다.

대유에이텍 관계자는 "협상 불발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고 스마트저축은행은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멈췄다

27주 만에 보합세로

26주 연속 내리막길을 걸던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5주째 들어 멈췄다.

2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5주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로 보합세를 보였다. 지난 4월 첫 주부터 지난 9월 4주까지 26주 연속하

락세를 보였던 매매가격이 멈춰선 것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광주 아파트 시장에 매매가까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할 지 주목된다.

광주는 지난해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올해 공급물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 4월부터 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광주지역에 풀린 새 아파트는 1만3253

가구로 지난해(7000가구)보다 두 배가 많다. 이에 따라 올들어 누계 변동률은 -0.47%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9월 5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고, 전세가격도 0.04% 올랐다. 수도권(0.05%→0.06%)과 서울(0.06%→0.08%)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5대 광역시(0.04%→0.03%)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